

# 전주·수원·여수, 해외 마이스 관광객 유치 협력

### 5개국 여행업체 임원진 초청 팸투어 진행... 마이스 행사 위한 코스 개발·행사 유치 공동 추진

전주시를 비롯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관광도시들이 더 많은 해외 마이스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3일부터 오는 7일까지 4박 5일간 경기도 수원시, 전남 여수시와 공동으로 태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 5개국 MICE전문 여행업체 임원진 10명을 초청하는 마이스 팸투어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첫 방문지인 수원을 거쳐 5일 전주를 찾은 초청 대상자들은 6일까지 이틀간 전주한옥마을과 국립무형유산원, 전북대학교 컨벤션센터 등 전주시 마이스 인프라를 둘러보고 여수로 이동할 계획이다.

시는 방문단이 전주에 머무는 동안 대표 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과 전통문화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 각국의 MICE 행사를 위한 코스 개발과 MICE행사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시는 MICE 행사를 개최하는 주최·주관 단체에 대해 △행사 개최를 위한 장비·행사장 임대료 △공식 오찬·만찬 △행사 진행을 위한 인쇄물 제작 등의 명목으로 최대 2000만원의 행사개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단, △전주시 예산을 별도로 지원받는 경우 △정치·종교·스포츠·친목·특강·순수관광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경우 △그 밖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이 금지된 회의 및 행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과 마이스 인프라를 활용해 앞으로 지속적 마케팅을 추진하고, 마이스 행사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지난 3일부터 오는 7일까지 4박 5일간 경기도 수원시, 전남 여수시와 공동으로 태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 5개국 MICE전문 여행업체 임원진 10명을 초청하는 마이스 팸투어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양은경 기자



전주시는 지난 3일부터 오는 7일까지 4박 5일간 경기도 수원시, 전남 여수시와 공동으로 태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 5개국 MICE전문 여행업체 임원진 10명을 초청하는 마이스 팸투어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 전주시,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

전주시는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및 자재유출 예방을 위해 4월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

대상은 △주정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 지연 등으로 인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며, 체납 발생 60일 이상 경과한 차량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할 수 없고, 체납된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이후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세외수입으로 가상계좌, 은행ATM기, 인터넷 뱅킹, 위택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지난달 7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사전 납부를 유도한 바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외에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단,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기차 화재예방 안전보호장비 구축

### 전주시 완산구, 구형 내 전기차 충전시설에 비치

전주시 완산구는 전기차 화재가 급증하며 많은 재산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차량화재에 따른 특별 안전보호장비를 구축했다.

임익준 완산구청장은 전기차 화재로부터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전기차 화재 진압용 장비를 구형 내 전기차 충전시설에 5일 비치했다.

비치된 화재예방 장비로는 '질식 소화포, 전기차 전용 소화기, 방재용품' (방재웃, 방진장갑, 고글) 등이며, 그중 질식 소화포는 불연성 소재의 천으로 화재 발생시 산소 유입을 차단해 짧은 시간 소화 진압이 가능한 장비다.

현재 일반소화기로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진압이 어려운 실정. 이번 장비 중 소화기는 전기차 전용 배터리 화재 진압 소화기다.

개별적인 장비 구입은 소방전문업체를 통해 가능하며 소화기(약 30만 원),

질식포 및 방재용품(약 2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장비 사용은 24시간 누구나 사용 가능하며 사용된 장비는 재사용이 가능하다.

구의 전기차화재 예방 장비구축은 우선적으로 주차시 화재, 충전중 화재에 따른 주위차량 화재방지를 막고 건물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화재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임 완산구청장은 "전기차 화재 예방 장비 도입으로 화재로 인한 시민의 안전과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며, 추후 주민센터까지 보급을 확대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이번 현장방문행정은 화재 발생 시 가연물질로 인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관계자의 안전 의식 제고와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 서장은 소각자원센터 현황과 안전관리 대책을 청취하고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 소방안전관리 사항까지 확인하며 꼼꼼한 현장행정을 펼쳤다. 또 찜질방,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이용객에 대한 초기 인명대피와 신속 대응 체계를 강조했다.

김장수 전주완산소방서장은 "소각자원은 화재 시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계자들의 위험요인 사전 제거와 철저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 김장수 완산소방서장, 소각자원센터 현장방문행정

김장수 완산소방서장은 완산구 소재 소각자원센터 화재취약 요소를 제거

하기 위해 5일 전주권 소각자원센터를 방문해 안전관리 현장지도도를 가졌다.



##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 국민연금공단, 사업 중단·실직·휴직 사유 납부예외 재개하면 월 연금보험료 50% 최대 4만5000원 1년간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월 최대 4만5,000원을 지원하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자가 7만 명을 넘었다고 5일 밝혔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세 가지 사유로 납부예외의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4만5,000원)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중단되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당장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 부담을 덜 수 있지만 그만큼 노후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들이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가입기간은 늘려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

신청 현황을 보면 연령별로는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은 50대가 38.7%(2만7,263명)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및 부산,

대구, 경남, 경북' 등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순으로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액별로는 최대 지원금액인 4만5,000원을 지원하는 대상이 전체 신청자의 92.6%(6만5,279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단은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뿐만 아니라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저임금 근로자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구직급여 지급자 실업크레딧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은 공단 전국 지사에 전화·방문·팩스 등으로 가능하고,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사나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보험료 지원제도는 납부 부담을 줄이면서, 연금 수급액은 늘리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노후 소득보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아 기자

## 3월 평균기온 역대 가장 높아

### 전북도 기후분석 결과 발표... 3월 평균기온 8.8℃ 평년 대비 +3.1℃

연일 건조한 기후에 따른 2023년 3월 전북지방 기온은 역대 가장 높았다.

이용섭 전주기상지청장은 5일 "2023년 3월 전라북도 기후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3월 평균기온은 8.8℃로 평년(5.7℃±0.5)보다 3.1℃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1973년 3월 기온 이후 역대 가장 높은 온도다.

이유로는 대륙고기압이 평년에 비해 매우 약하고,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은 가운데, 맑은 날이 많고 따뜻한 바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3월 7~11일 5일간 중국 내륙의 따뜻한 공기가 서풍류를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7~9℃가량 높아 4월 하순의 기온을 보였고 3월 하순에는 맑은 가운데 따뜻한 남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다.

따라서 지난 1921년 전주 벚나무 관측 시작 이래 2021년 3월 18일 개화 뒤를 이은 두 번째로 개화(3.22.)가 됐다.

/김영태 기자

3월 강수량은 29.9mm로 평년(37.5~57.1mm)보다 적었고(하위 10위), 강수일수도 3.7일로 평년(8.6일)보다 4.9일 적었다(하위 3위).

강수량 관련에선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은 3월 상순 저기압이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고, 중~하순 주로 우리나라 남쪽으로 지나가며 나타난 강수량이다.

3월 12일 중국 중부지방에서 접근하는 저기압 영향을 받아 비가 내렸지만, 저기압이 활성화되지 않아 강수량은 많지 않았고 3월 22~26일은 남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자주 내렸다.

고온 및 적은 강수 원인은 3월 열대 인도양과 서태평양에서 평년보다 대류활동(상승기류)이 강해 그 북쪽에 위치한 중앙아시아~동아시아 지역은 하강기류가 형성돼 동서로 폭넓게 고기압성 회전이 발달했다.

맑은 가운데 햇볕이 더해져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라시아 전역에서 지상기온이 매우 높았다.

/김영태 기자



###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